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군산시, 휴가철·8월말 개학 대면 교육 가능한 여건 조성 위해

군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지난 6일 백종현 보건소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 휴가철 및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시켜 반전시켜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현행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단일화 조치도 동일하게 연장했다.

이번 단계는 오는 22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번 발표에서 거리두기 2~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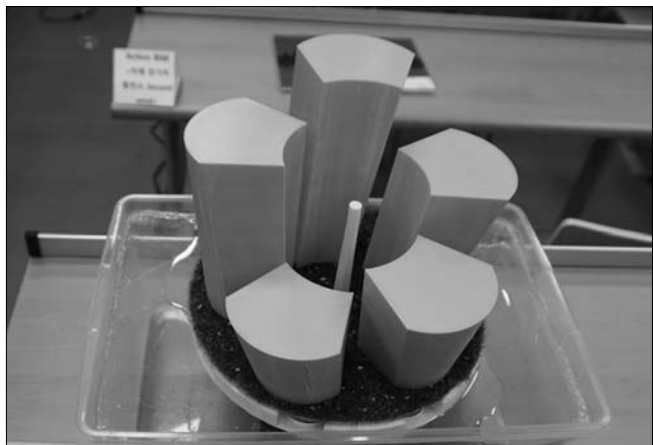
관련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4단계는 사회적 접촉 최소화 위해 예외 적용을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4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예외 혜택을 중단하고 3단계

이하는 혜택을 부여하며 지자체 자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족모임의 경우 3단계에서 직계가족 모임 예외를 미적용하고 상경례(8인), 돌잔치(16인) 등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4단계에서는 예외 적용을 하지 않는다.

또 전시회 박람회 상주인력 인원 제한 및 PCR 검사 예약제 시행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실내스포츠시설에만 적용되던 사위실 운영금지 조치를 실외체육시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해수욕장 휴양지, 공원 등의 야간 음주는 금지되며 숙박시설에서의 파티 금지 등 관리철저와 점검이 강화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최고상인 총장상에는 'M.S.G' 팀이 차지했는데, 'M.S.G' 팀은 수력,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무궁화 건물을 디자인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총장상 'M.S.G' 팀 차지

군산대, '수력·태양광·풍력을 이용한 무궁화 건물' 시상

군산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은 최근 군산대학교 종합교육관 대강당에서 2021학년도 크로스-옵티머스(X-Optimus)융합 교육 프로그램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팀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X-Optimus 융합교육프로그램'은 군산대가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전공의 경계없이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습득된 지식을 활용해 각 팀에서 아이템을 설정해 시작품까지 제작하는, 창의적 융합·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학생우요조사를 통해 디자인과정(SKETCHUP, BIM)과 3D 프린팅 융합교육을 6주간 실시하였다.

최고상인 총장상에는 'M.S.G' 팀이 차지했는데, 'M.S.G' 팀은 수력,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무궁화 건물을 디자인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크로스옵티머스(X-Optimus)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형 비교과 프로그램의 플랫폼으로 삼아, 학생 수요 조사 등을 통한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 월명동, 코로나 확산방지 방역활동 실시

군산시 월명동은 소속 직원 및 월명동 방역지킴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진행하고, 관내 상가 및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소독 활동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역활동은 휴가철을 맞아 근대역사 관광지역인 월명동 일대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됐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월명동 방역지킴이는 지역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됐으며, 상가 및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캠페

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윤병철 월명동장은 "이번 방역활동을 통해 월명동을 찾는 관광객들이 평소 알고 있던 방역수칙을 더욱 상세히 숙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인구정책서비스의 다양한 모습 담아

군산시, 인구정책 UCC 영상 공모전 수상작 선정

군산시는 제2회 인구정책위원회에서 2021년 군산시 인구정책 UCC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 선정을 위해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정책 및 일자리·정주여건 등을 주제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접수를 진행해 총 7작품을 접수받았다. 내부심사와 외부심사를 통해 총 5작품의 입상을 결정했다.

최우수상은 첫째를 출산하는 과정의 실패와 출산과정에서 경험한 임신부 친화적 농산물 서비스 및 출산장려금 혜택을 소개했다. 우수상은 부부 단 둘의 행복보다는 시끌벅적한 두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이 가치가 있음을 영상에 담았다.

이 밖에도 군산시 전입이야기, 육아



군산시는 제2회 인구정책위원회에서 2021년 군산시 인구정책 UCC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휴직정책 소개, 취업지원 서비스를 주제로 한 3팀의 작품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시 인구정책 서비스를 통해 출산이 기쁨이 되는 순간,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의 행복한 순간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 함께 영상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해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보였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대 농생명융합기술센터, '스마트팜 기술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는 '스마트팜 기술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모집 기간은 4일부터 11일까지이고, 모집 인원은 8명이다.

스마트팜 기술인력 양성과정은 전라북도에서 진행되는 전북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일환이며, 군산대학교가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

다. 모집대상은 도내 대학교 재학생, 미취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등 일반인이며, 교육비 및 식비는 전액 무료이다.

교육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는 17일부터 20일까지, 2차는 23일부터 27일까지이다.

강사진은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

수산대학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수업 내용은 ICT스마트팜 관련 내용, 양액시스템 실무, 스마트팜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생 선정은 선착순이며, 안내 및 소정 양식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융합기술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